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

3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 ●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2:15 신령한 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를 가리킨다.

3:5 아볼로 그는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이다. 그는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성령은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

3:5 사역자

1. 사역자(헬, 디아코노스)는 원래 식탁에서 시종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중(마 20:27), 사역자(롬 13:4), 일꾼(롬 16:1) 등으로 번역된다.

2. 본 절에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리킨다.

3장 요약정리

본장은 첫째, 인간지도자들의 공명심에 의한 절대화, 둘째, 교회지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집을 짓는 건축자에 불과함, 셋째, 모든 교인들이 주의 거룩한 성전임을 가르침, 넷째, 바울은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님을 주장한다.

-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 16 ●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 18 ●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
 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
 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
 라 하였고
-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
 느니라
-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
 임이라
-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
 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 4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
 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
 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 6 ●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
 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
 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
 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4장 요약정리

본장은 첫째, 교회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을 삼가 할 것을 권면, 둘째, 판단을 일삼는 자들의 교만함과 사도들의 겸손함을 비교하면서 판단과 교만함을 금지함, 셋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겸손할 것을 간절히 권면하였다.

3:17 하나님의 성전

신자 개개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가리킨다.

4:1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1 본 절에서 맡은 자란 한 집안의 사무를 관장하는 청지기를 의미한다.

2.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류구원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

4:5 어둠에... 드러내고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일들의 사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모두 다 드러낸다는 말이다.